

중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 '유기농의 기수' 지렁이가 일군 '생명의 땅'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지렁이 생태학습장'으로 소풍을 나온 장평어린이집 학생들이 손바닥에 올려놓은 지렁이를 신기한 표정으로 만져보고 있다. 슬로시티인 장평면의 땅은 지렁이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위지렁기자 jrwi@kwangju.co.kr

## 9 장흥 장평면 지렁이 생태학습장

### 천연 친환경 퇴비 생산 채소 재배 2004년 개장... 전국서 관광객 몰려

"나도 쥐요, 저도요" "나도 만져볼래요"

지난 주말 찾이간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지렁이 생태학습장'에서는 소풍 나온 장평어린이집 학생 16명이 너도나도 지렁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사육장 어두운 흙 속에서 들어 올려진 5~6cm 길이의 지렁이들은 밝은 태양이 겁나는 듯 연방 구물거렸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간지럽다"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배추와 고추 등이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 생태학습장 내 채소재배지에서는 흙을 파 헤치는 곳마다 지렁이들이 우글거렸다.

제해신(50)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담당은 "흙속에 지렁이가 산다는 것은 땅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라며 "슬로시티로 지정된 장흥군 장평면 일대는 지렁이 덕에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렁이는 도시민들이 보기에 징그러운 기괴동물이겠지만, 적어도 장흥에서는 스타(star)다. 특히 슬로시티로 지정된 장평과 유치면 입장에서 보자면, 지렁이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주민들의 수입을 늘려주는 고마운 존재다.

장흥에서 지렁이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군정의 방향을 '느린 세상'으로 잡은 장흥 군정이 '생명의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부터다.

'생명의 땅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장흥군은 '자연의 정기, 대지의 위대한 경작자'로 불리는 지렁이를 친환경 농법에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렁이는 최고 2.5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흙속에 양분과 빛물 등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 흙속

에 버려진 음식물이나 가축분변 등을 먹어치운 뒤 지렁이가 배설하는 '분변토(배설물이 섞인 흙)' 역시 화학비료와는 차원이 다른 친환경적 퇴비라는 점도 감안됐다. 지렁이가 친환경 유기농법의 기수가 된 셈이다.

하지만, 지렁이가 장흥을 넘어서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은 장흥군 장평면과 유치면이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사실이 큰 도움이 됐다.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실현해가는 슬로시티의 정신과, 대표적인 느림보 동물 가운데 하나인 지렁이가 결합해 '장흥 슬로시티=지렁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장흥군이 '지렁이가 우글거리는' 살아있는 땅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장흥에는 지렁이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해 재배한 배추와 상추, 고추, 토마토, 호박, 오이 등을 먹어보려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찾아들고 있다. 특히, 장평면 우산리 장평초등학교를 리모벨링해 지난 2004년 오픈한 1만여㎡ 규모의 '지렁이 생태학습장'에는 연일 지렁이 체험객을 비롯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지렁이 생태학습장에서는 올해 600t 규모의 분변토를 생산, 장평면 우산리에서 재배되는 채소의 20%를 길러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준영(40) 생태학습장 교장은 "흙속에 독소가 섞여 있으면 지렁이가 살지 못하는 만큼, 지렁이가 사는 흙이 건강한 흙"이라며 "지렁이와 슬로시티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장흥에서는 지렁이가 지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형기자 redplane@kwangju.co.kr

##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살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 여행노트

## 장흥 장평면 우산마을

화순에서 장흥으로 넘어가는 길은 한가로웠다. 찾아가는 곳은 장흥군 장평면. 장흥 초입에 자리 잡은 장평면은 천관산, 보림사, 제암산 등 장흥의 유명 관광지를 끼고 있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다. 나 역시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전에는 장평이라는 곳을 전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탈지 않은 탓에 간단한 지도와 이정표를 보며 운전했다. 첫 방문 예정지는 지렁이 생태학교가 자리한 우산마을.

## 야트막한 흙담

## 자전거 타는 아이들...

## 시간이 멈춰선 평화

안내 표지가 제대로 없어 해마다 '계명성 문화카페'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했다. 보림사로 넘어가는 길목 봉림마을에서였다. 이런 시골에 웬 문화카페일까. 잠시 차를 세우고 들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쉬는 날. 주인장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열린 문으로 카페 안을 들여다 봤다. 소박한 인테리어에 그림과 시화들이 걸려 있고 책들도 눈에 띄었다.

근데,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정원에 세워진 시비(詩碑). 처음에 발견한 건 40여 개 정도였는데 카페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곳에도 시비가 가득했다. 100여 개는 넘을 듯했다. 깔끔하게 단장됐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어수선하고 정성없어 보인 것지만 천천히 거닐며 돌에 새겨진 작품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여러 시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새겨져 있는 가운데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건 문병순이라는 이름이

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니 봉림마을이 고향인 향토 작가 문씨가 사재를 털어 조성한 시비 문화공원이었다. 천천히 차를 몰아 면소재지로 들어섰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있는 70대 할머니에게 우산마을 가는 길을 물었더니 말씀하셨다. "아따, 나 우산 마을 바로 뒷동네 사는 이 좀 태워다 주소." 차에 탄 할머니는 길 안내뿐 아니라 '슬로시티', '지렁이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다. 슬로 시티 해설사 수준이었다. 이 다음에 사람들 많이 찾아오면 슬로시티 해설사로 활동하시라고 했더니 막 웃으셨다.

길을 다시 되짚어 도착한 우산마을 입구엔 '느린 세상, 행복한 마을'이라는 팻말이 서 있다. 마을로 들어서자 할머니의 설명이 이어졌다. 마을 곳곳에선 한옥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민박집으로 활용할 거라고 했다. 김치가공 공장과 녹색농촌체험관 등도 모두 한옥으로 지어져 있다. 모든 풍경이 인공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좋았다.

천천히 마을을 한바퀴 돌았다. 작은 시골 마을에 어울리는 딱 그만한 크기의 교회,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야트막한 흙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 화려한 볼거리는 없었지만, 우산마을에서 시간은 참 더디게 흐르는 듯했고, 그래서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혜경(한국어 강사·광주시 남구 풍암동)



장흥군 장평면 우산마을엔 다양한 모습의 한옥이 들어서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을 깨우는 건 자전거 타며 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실용회화 포켓책**  
알짜배기 여행 외국어

**ALIVE** 학습법

**생활단어 및 교육과정**  
핵심단어 총망라!!

2000 개 이상

**수업자료 및 교재자료**

다양한 주제와 수준에 맞는 교재와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각 과목 학습법 및 교재**

각 과목별 학습법과 교재를 제공합니다.